

# 「알먹고 키자랑 닭먹고 힘자랑」

— 양계산물 소비홍보표어공모 최우수상, 유점자씨와 함께 —



■ 우선 최우수상에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응모표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명예의 주인공이 되셨는데 당선소감부터 한말씀 해주시죠?

유점자 : 무척 기쁩니다.

최선을 다해 응모하기는 했지만 최우수상을 받으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다만, 최우수상은 아니더라도 당선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만은 갖고 있었는데 뜻밖의 큰상을 차지했습니다.

□ 영양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계란과 닭고기를 키와 힘으로 연결시키게된 발상은 어디서 얻으셨

'86본회 중점사업인 양계산물 소비홍보사업의 일환으로 10. 1부터 10. 30까지 양계산물 소비촉진 홍보표어를 현상공모하여 전국에 걸쳐 공무원, 교사, 학생, 주부 등이 응모 총 1,482건이 접수되었다.

그중 1·2차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의 명예에는 유점자씨(39세, 충남대전시 중구 도마1동 84-2)의 「알먹고 키자랑 닭먹고 힘자랑」이 차지했다.”

본지는 지난 12월 11일 본회회의실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유점자씨 가족을 만나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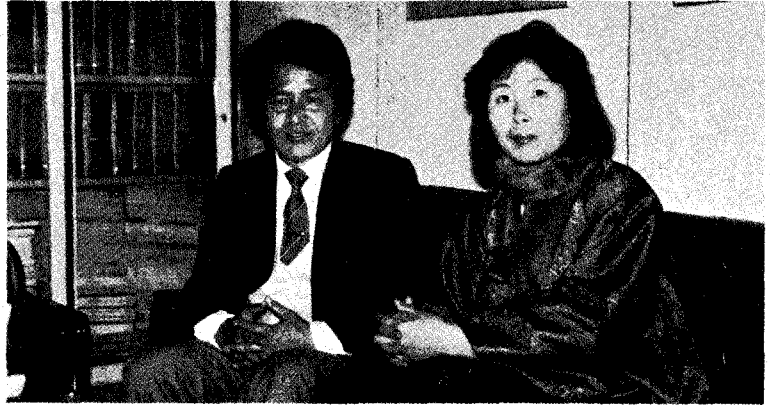
음니까?

유점자 : 우리집에는 12살 먹은 쌍둥이형제가 있고 애들 아빠도 국민학교(서산군 태안국교)교사라서 어린이들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요즈음은 여자어린이·남자어린이 모두들 키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중에서 특히 남자어린이는 힘이 세기를 원하지요. 집에서 키가 커지고 힘이 세진다고 하면 어떤 음식도 아주 잘먹어요.

얼마전만 해도 배불리 먹기만하면 되었는데 요즈음에는 건강이나 영양적인 면에서 바란스를 맞춰 음식을 섭취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점을 고

최우수상의 유점자씨(오른쪽)와 자리를 함께한 부군 변득수(왼쪽)씨



려해서 완전식품인 계란을 먹으면 키가 커지고 고단백질의 닭고기를 먹으면 힘이 세진다는 관심이 높은 애기를 활용할 생각을 했습니다.

■ 표어를 쓰실때 어떤점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유점자 : 무엇보다도 표어란 이미지가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미지가 강하려면 양계산물의 특성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으로 문장도 짙막하며 쉽게 느낄 수 있는 운율을 지녀야 한다고 봅니다.

표어공모에 응모하기까지 표어를 수 백번도 더 써봤어요. 출품하려고 몇점을 선정한 다음 그중에서 주위 여러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간추린 표어가 「알먹고 키자랑 닭먹고 힘자랑」이었어요. 제가 써놓은 다른 표어들 보다는 강한 이미지를 지녔다고 봅니다.

■ 닭고기·계란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신데 평소애 닭고기·계란 요리를 얼마나 애용하시는지요?

유점자 : 계란은 수시로 먹고 있어요. 아이들도 시락 반찬이나 간식으로 많이 쓰고있고, 닭고기는 일주일에 한번정도 먹고 있습니다.

우리집 아이들은 닭튀김을 좋아해서 제가 집에서 직접 조리해서 줍니다. 다른 고기보다 부드럽고 연하며 즉석에서 먹으면 따끈따끈한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튀기기전에 마늘과 생강, 후추를 충분히 양념하면 닭냄새도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가격도 부담이 없고요.

■ 부군(夫君)께서도 자리를 같이 하셨는데, 양계산물의 영양이나 특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득수(유점자씨 부군) : 저는 현재 태안국민학교에 재직하고 있으며 대학원에서 축산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남보다는 축산물에 관심을 많이 쏟고있는데 그 중에서도 계란과 닭고기는 영양적 가치가 뛰어나며 가져도 저렴한 우수한 식품이죠.

계란은 누구나 다 아는 완전식품이며 닭고기는 비타민B군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미용식, 다이어트식으로 현대인의 건강과 미용에 적합한 동물성 식품이라고 봅니다.

■ 표어를 쓰실때 여러사람이 수고를 하셨다고 했지만 시상금(30만원)은 유점자씨에게 돌아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쓰실 계획이십니까?

변득수 : 마침 저희 결혼기념일이 다가와서 그때 집사람 선물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덕택에 뜻깊은 결혼기념일을 맞이하게 되어 심사위원과 협회여러분들에게 이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 심사위원들이 표어를 심사할때 가장 역점을 둔 사항인 닭고기와 계란의 우수성을 함축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눈과 귀에 익숙한 운율을 지녔다는 특성이 강해 심사위원들의 많은 득표를 얻은 「알먹고 키자랑 닭먹고 힘자랑」이 최다득표의 표어로 선정되었는데 응모자의 의도와 심사기준이 일치한 점이 최우수상으로 연결시킨것 같군요. 감사합니다. <美>